

거칠부의 出家와 出仕

Geochilbu's life as a monk and his public activities as an official

저자 (Authors)	朱甫暉 Ju, Bo-don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연구 76 , 2014.12, 167-202 (36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76 , 2014.12, 167-202 (3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75861
APA Style	朱甫暉 (2014). 거칠부의 出家와 出仕. 한국고대사연구, 76, 167-2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거칠부의 出家와 出仕

朱甫^{*}

- I. 머리말
- II. 出家의 배경과 가계
 1. 출가 배경
 2. 家系와 그 指向
 3. 智證王 및 異斯夫와의 관계
- III. 出仕와 출가의 경험
 1. 출사와 경험의 적용
 2. 惠亮과의 만남, 그리고 불교 진흥
 3. 花郎徒 창설과 역할
- I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 진흥왕대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대표적 인물로서는 거칠부를 손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는 사실은 생각 밖의 일이다. 그래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2014 「신라 낭산의 역사성」 『신라문화』 44 ; 2013 「고대사회 성주의 향방」 『신라문화』 42 ; 2013 「삼국유사 승전축루조의 음미」 『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34.

여기서는 거칠부의 활동상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출가와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실상에 접근하여 보고자 하였다.

거칠부의 집안은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서 공인되기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관료로 나아가기에 앞서 승려의 길을 걸었던 독특한 경험을 하였다. 어린 나이로 출가한 배경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전국을 자유롭게 주유, 유랑하면서 습득한 그 시절의 체험은 관료로 나아갔을 때 곧장 정책에 반영되었다. 특히 고구려 승려 혜량과의 운명적 만남은 그를 실천에 옮기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551년 친정을 개시하면서 연호를 開國으로 내건 진흥왕은 혜량을 국통으로 맞아들여 그에 어울리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대는 이제 막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서 공인된 상태였으므로 기반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듯하였다. 그래서 진흥왕은 고구려 망명 승려 혜량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취약점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대표적 호국도량인 황룡사의 창건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불교는 정치와 밀착되어가 명실상부한 불교식 왕명시대를 구축하여 갔다. 진흥왕은 스스로 신라의 전륜성왕으로 자처하였으니 그럴 만한 이론적 사상적 근거는 거의 대부분 혜량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거칠부는 관료로서 기반을 굳혀가고 특히 진흥왕의 핵심 보좌역을 수행하게 되면서 화랑제의 창설을 건의한 것 같다. 화랑도 교육의 중심적 내용은 건의자 거칠부의 성장 과정 및 출가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거칠부는 어린 출가의 경험을 배경으로 진흥왕 일대를 통해 슬한 업적을 쌓음으로써 삼국통일への 기반을 구축하였다.

주제어 : 거칠부, 진흥왕, 출가, 화랑도, 혜량, 황룡사, 호국도량

I. 머리말

眞興王代(540-576)는 신라사의 전개 과정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룬 특별한 시기로 평가되어 왔다. 삼국 가운데 가장 후발주자였던 신라가 마침내 삼

국 통합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기반이 갖추어진 시기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한 군주 진흥왕 개인의 두드러진 역량은 물론 몇몇 탁월한 인물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 가운데 특히 명장 異斯夫와 居柒夫를 대표적 인물로 손꼽는 데 누구도 異意를 달지 않을 터이다.

이 두 사람의 활약상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분산적인 단편 기사와 함께 열전에 정리된 내용을 근거로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그중 이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루어 본 몇몇 시도가¹⁾ 찾아진다. 그렇지만 의외로 거칠부의 활동상 전반을 다룬 논고는 하나도 없다. 간혹 그가 왕명을 받아 편찬을 주도한 『國史』를 다루거나 혹은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살피는 가운데 겨우 일부분만 언급하여 왔을 따름이다. 이로 말미암아 거칠부가 수행한 역할 전모는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단언하여도 좋다.

기실 『삼국사기』 열전에 입전되어 있기는 하여도 거칠부의 생애 전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는 관련 사료가 너무도 빈약하다. 그를 專論한 단 한편의 논고가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관점을 약간만 달리 잡는다면 의외의 성과를 올릴 만한 여지도 엿보인다. 특히 거칠부의 삶 전반이 불교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을 떠올리면 그러하다는 느낌이다. 그가 仕宦의 길로 나서기에 앞서 出家하였던 경험은 이후 그의 행로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상정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그가 한강 유역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만난 고구려 출신의 망명 승려 惠亮을 진흥왕에게 추천함으로써 國統(혹은 僧統)으로 삼게 하였다는 사실도 그 연장선상에서 각별히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칠부의 생애를 살피는 데 불교는 떼어낼 수 없는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1) 김창겸, 2011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 101 ; 김창석, 2009 「신라의 우산국 복속과 이사부」 『역사교육』 111 ; 이명식, 2004 「신라 중고기의 장수 이사부」 『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25.

그럼에도 기왕에 거칠부가 불교와 깊이 연루된 사실에 착목하여 접근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칠부의 활동상을 놓고서 각별히 그의 출가 문제와 연결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출가에 초점을 맞추어 거칠부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하면 望外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설정한 목표치에 어느 정도라도 다가갈 수만 있다면 이는 진흥왕대, 나아가 신라사의 한 귀퉁이를 조금이라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出家의 배경과 가계

1. 출가 배경

거칠부의 활동은 『삼국사기』 열전에²⁾ 따르면 승려로서 출가한 사실로부터 보이므로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의 출가 시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少’라고만 간략히 표현되어 어린 시절이었던 사실만 대충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몇 살 때,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과 연유로 출가하기에 이른 것인지 등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 출가 목적을 그냥 ‘跡弛有遠志’라고만 하여 어딘가 얽매이지 않고서 큰 뜻을 품은 결과였다는 막연한 사실만 보일 따름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짐작하기가 곤란하다.

‘少’란 표현으로 미루어 출가할 때의 연령이 일단 성년에는 채 이르지 못한 소년시절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시점을 대충이라도 상정해 볼 만한 일말의 실마리가 찾아진다. 사망할 때의 연령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거칠부는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 眞智王(576-579)이 즉위하자 즉각 上大

2) 『三國史記』 卷44 列傳 居柒夫傳.

등으로 발탁되었다. 그런데 진지왕은 재위 4년 째 되던 해인 579년 ‘政亂荒姪(嬖)’하였다는 이유로 國人들에 의해 갑자기 폐위되고 말았다.³⁾ 이 국인의 실체는 뚜렷하지 않지만 대체로 상대등을 의장으로, 구성원을 大等으로 한 회의체(이른바 대등회의)였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상대등으로서 회의의 주재자였던 거칠부는 진지왕의 폐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은퇴해 지내다가 78세를 일기로 私邸에서 일생을 마쳤다고⁴⁾ 한다. 사망 시점은 명확하지가 않지만 상대등에서 물러난 579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렇게 본다면 거칠부는 대체로 지증왕대, 특히 그 초반 무렵에 출생하였음이⁵⁾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한 추정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근거는 이사부가 그와 叔姪 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사부는 奈勿王(356-402)의 4세손인 반면, 거칠부는 5세손이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는 한 세대 차이로서 아무리 멀게 잡아도 7촌간이다. 이사부는 지증왕 즉위 초 무렵 관직에 나아가 활약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뒤인 505년에는 동해안 방면을 책임진 최고 군사령관이라 할 悉直軍主에 보임되었다. 이때 그의 연령은 줄잡아 20대 중반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 세대 연령의 차이를 대충 25년으로 잡으면 거칠부는 그 전후한 무렵에 출생하였다고 단정하여도 그리 어긋나지는 않겠다. 사실 이사부와 같은 세대인 거칠부의 아버지인 勿力(智)이 524년의 울진봉평신라비에서 관등 제7등인 一吉干支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도 그렇게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거칠부의 연령 추정을 보충해 주는 또 다른 사례는 그가 545년 『국사』를 편찬할 때의 관등이 大阿滄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국사』 편찬 사업을 성공리에 끝낸 공로를 인정받아 파진찬으로 승진하였다.⁶⁾ 이 무렵 그는 상당한

3) 『三國遺事』 卷2 紀異 제1 桃花女鼻荊郎條

4) 『三國史記』 卷44 列傳 居柒夫傳.

5) 윤진석, 2013 「5-6세기 신라의 정치운영과 갈문왕」,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47
에서는 거칠부의 출생을 막연히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였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고위직에 이르고 있는데 아마 중년을 넘어서 나이였다고 하여도 무리한 추정
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거칠부가 智證王(500-514)의 재위 전반 혹은 늦어도 중반
무렵에는 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리 지나친 추정은 아니라 여겨진다. 그렇다
면 출가 시점을 그로부터 환산해서 아무리 늦추어 잡아도 520년대 초·중반
의 어느 시점이었으리라 짐작된다. 法興王(514-540)은 재위 15년(527) 蘇塗
로 여겨지는⁷⁾ 天鏡林의 나무를 베어내고서 바로 그 터에다가 신라 최초의 사
찰인 興輪寺 창건을 강행하려다가 극력 반대하는 보수 귀족들과 한바탕 싸움
을 벌였다. 급기야는 젊은 異次頓의 순교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⁸⁾ 거쳐서 비
로소 불교가 공인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연령상으로 미루어 거칠부가 출가하
였다면 그 구체적 시점은 바로 공인되기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
의 출가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은 각별히 눈여겨볼
사항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라국가가 승려의 출가를 처음으로
공식 승인한 시점이 진흥왕 5년(544)이었음을⁹⁾ 상기하면 정식 과정을 밟은
출가는 아니었던 셈이다. 어쩌면 출가할 때의 장면을 묘사한 ‘蹠弛(아무것도
도 얽매이지 않고 멋대로 한다는 뜻)’라는 표현 속에는 그런 사정이 함축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이처럼 거칠부가 공인 이전 국가의 정식 승인을 받지도 않고서 원대한 뜻
을 품고 출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불교의 기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전제로 할 때 비로로 가능한 일이겠다. 거칠부는 이차돈처럼 관료를 나아가

6) 『三國史記』卷44 列傳 居柒夫傳.

7) 李基白, 1954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歷史學報』 6 ; 1986 「新羅思
想史研究」, 一潮閣, p.29.

8) 『三國遺事』卷3 興法 原宗興法條.

9)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5年條.

기에 앞서 이미 불교와 관련한 기본 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차돈도 비록 출가한 상태는 아니지만 在家佛者(居士)로서 특이하게 머리를 깎은 이상한 모습을 하고서 관료 생활을 영위하였음은¹⁰⁾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내밀히 연관 맺고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거칠부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 불교문화와 깊숙이 접촉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 점은 그의 가계를 잠시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2. 家系와 그 指向

거칠부의 아버지는 이찬까지 오른 물력이란 인물이다. 울진봉평비가 세워진 524년 당시 그의 관등은 일길찬에 불과하였지만 관료 생활 최후 단계에는 2등인 이찬까지 올랐던 것 같다. 그의 할아버지는 최고위 관등인 이별찬(각간)에까지 오른 仍宿이란 인물이었다.¹¹⁾ 증조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고조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물왕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나물왕에게는 뒷날 왕위에 오른 장남 訥祗王(417-458)을 비롯하여, 卜好, 未斯欣 등 세 아들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밖에 지증왕의 아버지 期賣葛文王도 어떤 특정 기록¹²⁾에 따르면 나물왕의 아들이라고 기술하였으므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같은 범주에 넣을 수도 있겠다. 다만, 그와는 내용이 다른 기록도 있으므로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처럼 확실하게 나물왕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만 염두에 둔다면 거칠부의 증조부는 놀지, 복호, 미사흔의 3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물왕의 傍系卑屬임이 분명한 거칠부의 가계는 혈통과 관등, 활동상 등등 여러 모로 미루어 당시 왕실과 직결되는 유력한 핵심 집안 가운데 하나였음은

10) 『三國遺事』卷3 興法 原宗興法 獸鬻滅身條.

11) 『三國史記』卷44 列傳 居柒夫傳.

12) 『三國遺事』卷1 王曆 第二十二智訥麻立干條.

틀림없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거칠부의 할아버지를 열전에서는 仍宿이라고 표기 하였으나, 이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두 차례나 보이는 乃宿과¹³⁾ 동일하다고 보는 유력한 견해가¹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비슷한 점, 최고 신분과 관등을 지녔다는 점, 仍(仍)과 乃(乃)가 글자 모양이 비슷한 탓에 필사 과정에서 착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추정이다. 가령 內숙과 內숙이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추적은 곤란하지만,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덧붙일 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볼 만한 대상이 된다.

內숙은 炤知王(479-500) 8년(486) 이별찬으로서 國政에 참여하게 되었다고¹⁵⁾ 한다. 이는 內숙이 소지왕대 정치의 핵심으로서 깊숙이 간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바로 직전까지 그의 官歷이나 활동상을 알려주는 기록이 보이지가 않는다. 다만 잠시 관심을 끄는 점은 그가 소지왕의 장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즉위년조에 의하면 소지왕의 왕비는 善兮夫人인데, 바로 內숙 이별찬의 딸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혜부인은 거칠부에게 고모이며, 소지왕은 고모부가 되는 셈이다.

한편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그와는 달리 소지왕비의 이름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단지 期寶葛文王의 딸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다. 이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內숙은 곧 기보갈문왕과 동일한 인물이¹⁶⁾ 된

13)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于 8年條.

14) 李基東, 1972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합집 ; 1984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p.78.

15)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于 8年條.

16) 朴南守, 2003 「신라 和白會議에 관한 재검토」 『신라문화』 21.

다. 그런데 이 기보갈문왕을 같은 『삼국유사』 왕력편에서는 지증왕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지증왕 즉위년조에서는 지증왕의 아버지를 翳寶갈문왕이라 명시하였다. 습보와 기보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냉수리비에서 翳比(部)를 斯彼로 표기한 점을 참고로 하면 翳과 斯는 일단 서로 통용될 만한 여지가 엿보인다. 한편 斯는 期와 자형이 매우 비슷해서 그렇게 誤寫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결국 습보와 기보는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도 무방하겠다.

만일 이상과 같은 이해가 받아들여진다면 지증왕은 선혜부인과 자매지간이 되고, 또 거칠부의 아버지 ingsuk(내숙)과도 형제지간이 된다. 지증왕은 거칠부에게는 백(숙)부가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내숙과 습보(기보)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달리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왕력편의 두 기록 모두를 인정한다면 소지왕에게는 선후하는 2명의 왕비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편이 한층 적절한 진단으로 여겨진다. 한 명은 내숙의 딸인 선혜부인이며, 다른 한 명은 이름이 기록상에 등장하지 않는 습(기)보갈문왕의 딸인 셈이다. 전자의 경우 선혜부인은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칠부의 고모이며, 후자의 경우에 따르면 소지왕과 지증왕은 처남매부지간이 된다.

이처럼 서로 계통이 다른 두 기록 각각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소지왕에게는 어떤 연유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일단 내숙의 딸과 기(습)보갈문왕의 딸이라는 두 명의 왕비가 존재하였던 셈이 된다. 당시 신라는 두 명의 왕비가 함께 존재한 사례가 달리 없는 일부일처제 사회였으므로¹⁷⁾ 두 사람은 공존한 것이 아니라 선후하였다고 풀이함이¹⁸⁾ 적절하겠다.

17) 朱甫暉, 2010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啓明史學』 21, pp.46~48.

18) 윤진석, 2013 앞의 논문, p.54. 다만 이 글에서는 기보갈문왕의 딸을 선비, 선혜부인을 후비로 보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왕비 교체를 일으켰을 만한 계기를 제공한 특정한 사건을 굳이 찾아본다면 소지왕대에 궁중에서 일어난 이른바 焚修僧과 宮主의 살해 사건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 기이편 射琴匣條에 의하면 488년 궁중에 들어와 머물고 있던 분수승이 소지왕의 출타를 틈타 궁주와 밀통하다가 발각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파장이 작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당시 아직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분수승이 궁중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특별히 유념해볼 대상이다. 이는 왕실 내의 일각에서 불교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그를 적극 신봉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흔히 지적되었듯이 불교가 訥祗王 무렵부터 신라에 전래, 수용되기 시작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이 무렵에는 왕경에는 물론 왕실 내부에까지 침투되었을 가능성은¹⁹⁾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27년 법흥왕이 추진한 불교 공인이 이른바 이차돈의 순교라는 비상사건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불교 수용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사금갑설화는 불교 수용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대립 가운데 하나의 큰 사건으로 손꼽을 수 있겠다.

사금갑설화는 불교가 5세기 초반 신라에 전해져 확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내부적 갈등과 마찰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것이 궁중 깊숙이까지 미쳐 마침내 심각한 상황에 이른 실상을 보여준다. 소지왕을 비밀리에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나왔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대립·갈등 수준은 거의 정점에까지 이른 듯하다. 이를 사전에 알아차린 소지왕 등 반대파가 분수승과 궁주의 잠통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용파를 힘으로 제압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금갑설화라 하겠다. 노골화된 일단의 싸움에서 반대파가 승리를 거두었다.²⁰⁾ 이후 이차돈의 순교로 완전히 공인되기에 이르는 데

19)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p.157.

에는 한층 더 많은 곡절의 과정을 겪었으리라 짐작된다.

기록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불교 반대파의 대표는 소지왕이며, 수용파의 대표는 공주였다. 단순히 공주라고만 표현되었을 뿐 구체적 인명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공주는 고려에서는 흔히 후궁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신라에서는 달리 용례가 없으므로 그 존재 유무를 비롯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그 자체는 신라에서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설화가 채록되는 과정에서 고려의 것이 투입하여 그렇게 표현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여하튼 공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궁의 주인’이라는 뜻이므로 단순히 궁중의 잡무를 맡은 궁녀의 수준을 넘어서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특히 일개 궁녀가 아직 불교가 널리 공인된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용 여부를 놓고서 극심하게 대립·갈등하던 도중에, 승려를 궁중 깊숙이까지 불러들여 내밀한 관계를 맺었을 리가 만무한 일이다. 일단 그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공주는 단순한 궁녀는 아니었으며, 용어 그대로 ‘궁의 주인(안주인)’이라 할 왕비, 혹은 그에 버금가는 지위를 것처럼 표현하였을 수 있겠다. 기실 불교 수용에 반대한 국왕에게 직접 맞설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밖에 달리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터이다. 만일 공주가 왕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그 위상을 결과론적 입장에서 한껏 낮추어 것처럼 불렀을 수도 있겠다.

설사 공주가 왕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직 불교가 공인되지 않았음에도 승려를 궁중에까지 불러들였다면 여기에 왕비까지 연루되었다고 상정하여 별로 무리하지는 않을 듯 싶다. 비록 겉으로 공주가 내세워지기는 하였어도 그 배후에는 사실상 왕비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큰 규모 세력이 존재하였고, 불교 수용 여부를 놓고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파와 대립·갈등하던 상황이

20) 이는 불교를 놓고 반대파와 수용파 사이에 벌어진 제 1차전이라 할 수 있다.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공주 혹은 왕비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며, 그들의 배후에는 집안(가문)과 같은 큰 세력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사금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공주는 일단 그렇다손 치더라도 왕비 및 그 族黨도 온전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소지왕에게 두 명의 왕비가 존재했음이 확실하다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뀌었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 두 왕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이고 어느 쪽이 나중인지는 명확하게 판별할 길은 없다. 내숙이 이별찬으로 승진한 시점이 486년인 점으로 미루어 그의 딸이 첫째 왕비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숙이 그와 같은 자신의 유력한 위치를 배경으로 해서 사건이 처리된 이후 그 딸을 왕비로 들였을 수도 있겠다.

내숙의 딸이 소지왕의 전·후비 어느 쪽인지는 선뜻 가늠할 수는 없지만 왕비로서 불교를 신봉하고서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하였을 공산이 크다. 그것은 먼저 선혜란 이름으로부터 추정되는 사실이다. 선혜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신라식 이름이 아니며, 한문식으로서 ‘善’은 불교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내숙의 손자로서 선혜부인의 친정 조카인 거칠부가 어린 시절 출가하였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거칠부가 불교의 공인 이전임에도 어린 시절의 출가가 가능하였음은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에서 비롯한 것 같다.

이상과 같이 거칠부의 집안은 원래 불교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거칠부는 지증왕이나 이사부와의 단지 혈연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긴밀히 연루될 만한 그런 측면이 엿보인다. 당시 왕실 집단 내부에서 불교 수용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 소지왕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지증왕은 적극 수용하자는 쪽이었다. 그것은 지증왕과 그 후계자들이 추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런 사정이 이사부가 지증왕과 줄곧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

칠부도 불교 공인에 힘써 성공한 법흥왕대에 출사하여 진흥왕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력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智證王 및 異斯夫와의 관계

불교 수용을 반대하던 소지왕은 재위 22년 만인 500년 사망하였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져 봄직한 기록이 있으나²¹⁾ 다른 기사와 연결지어 살피지 않는다면 별다른 주목을 끌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503년 9월에 세워진 迎冷日水里新羅碑가 발견되면서 소지왕의 죽음이 심상치 않았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거기에는 기왕의 사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몇몇 중대한 새로운 내용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기존 문헌이 보여주는 내용과는 다르게 503년에 이르기까지 지증왕이 아직 왕위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문헌이 근본 문제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지증왕은 즉위하기 이전 국왕 다음가는 제2인자로서 葛文王을 역임하였다는 사실이다. 냉수리비를 제외한 어떤 기록에도 그와 같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다. 셋째, 지증왕이 원래 국왕을 배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喙部가 아닌 沙喙部 소속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왕실의 소속 부 뿐만 아니라 부와 관련한 근본적 문제를 재검토하게 하는 단서가 되었다. 넷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회의체를 국왕(寐錦王)이 아닌 갈문왕이 주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소지왕의 有故, 아니면 다른 형태의 회의체가 존재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이런 몇몇 사항들은 지증왕의 즉위 자체를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를 주된 실마리로 삼아 소지왕으로부터 지증왕에로의 왕위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가²²⁾ 당연히 뒤따랐

21)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于 22年條.

22) 鄭求福,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의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3 ; 朱甫墩, 1989 「영일냉수리신라비에 대한 기초적 검토」 『新羅文化』 6 ; 2002 「금석문과 신라

다. 이로 말미암아 과거 그냥 언뜻 스쳐 지나갔던 기존의 사료를 다시금 한층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언급한 사금갑설화이며, 다른 하나는 소지왕이 사망하던 바로 그해 기사에 실린 특이한 사건이다.²³⁾

후자의 경우 각별히 주목해 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소지왕은 사망하기 이전의 몇 년 동안에 걸쳐 오늘날 경북 榮州로 비정되는 捺已郡에 자주 행차하여 그곳의 유력자 波路와 특수한 관계를 맺었고, 그의 딸 碧花를 여자로 맞아들이기까지 하였다. 그런 사실에 대해 영주 인근의 安東으로 비정되는 古陞郡의 老嫗가 비난하자 소지왕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 날이 지경으로의 행차를 그만두고 대신 벽화를 왕궁의 別室로 데려갔는데, 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한다.

기왕에는 위의 두 사건을 서로 연관지어 유추해 내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냉수리비의 발견으로 지증왕의 즉위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추론이 성립되면서 두 기사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지증왕이 64세란 전무후무한 高齡으로 즉위한 사실도²⁴⁾ 그와 관련하여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사실로 부각된 상태이다. 게다가 지증왕이 즉위하자마자 여러 방면에 걸쳐 추진한 비상적 개혁도 그의 즉위 사실과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증왕은 재위 15년 동안 엄청난 개혁적 시책을 펼쳤다. 그 가운데 특히 즉위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대상은 재위 3년(502) 殉葬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이다.²⁵⁾ 그 이전의 국왕이²⁶⁾ 사망하였을 때에는 남녀 각 5인, 도합 10인을

사』, 지식산업사.

23)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于 22年條.

24) 『三國遺事』卷1 紀異 제1 智哲老王條.

25)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智證麻立于 3年條.

26) ‘前國王’이란 표현을 이전의 국왕, 先王 가운데 어느 쪽으로 풀이하느냐에 따라 주장에 대한 이해는 일정 부분 달라진다.

순장하던 것을 이때에 이르러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앴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이때의 순장 금지 조치를 주로 노동력 확보라는 사회경제사적 의미가 갖는 것으로만 논의하여 왔다. 그렇지만 약간 확대하여 보면 그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의 殺生禁止라는 생명존중의 慈悲心과 연결지어 해석할 여지도 생겨난다. 순장을 금지하던 바로 그 해에 적극 추진된 牛耕의 실시와 관련지ουν다면 노동력 확보의 측면도 쉽게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불교의 생명존중 의식과도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지증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그의 아들 법흥왕이 마침내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佛法을 일으켰다’는 의미의 왕명을 갖게 된 것도 이미 그와 같은 기본 바탕이 깔려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그밖에 달리 지증왕대에 추진된 여러 시책에서 불교와 직접 연관되는 조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사부의 활동 속에서는 유추해 낼 수 있는 약간의 실마리가 포착된다.

이사부는 지증왕 6년(505) 실직군주로 임명된 이후 동해안 방면의 방어를 총책임진 군사령관으로서 괄목할 만한 활약을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지증왕 13년(512) 오늘날 강릉인 何瑟羅州의 군주로 발령받자 곧장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于山國(울릉도)의 복속에 나섰다. 우산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사납다는 소문을 미리 듣고서 그는 특이한 계책을 마련하였다.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싣고 가서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섬에다가 풀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전혀 피를 흘리지 않고서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²⁷⁾

이 기사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은 대상은 木偶獅子이다. 사자가 한반도나 중국에서는 서식하지 않은 동물임은 잘 아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나무로 사자 모습의 동물상을 만든 것은 그런 문화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설법을 獅子吼, 부처가 앉는 자리를 獅子座라고 하며,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는 등 그것

27) 『三國史記』卷44 列傳 異斯夫傳 및 『三國遺事』卷1 紀異 제1 智哲老王條.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두루 아는 바와 같다. 불탑의 주변에다가 보호를 위한 상징으로서 사자상을 만들어 배치하기도 하였다. 사자가 많은 인도의 자연 환경이 불교문화에 스며든 결과이다.

사자가 살지 않던 신라사회에 대충의 모습만이라도 전해진 것은 불교 전래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사부 자신이 불교문화와 깊숙이 접촉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이사부, 혹은 그와 관련한 집단이 불교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상과 같이 지증왕과 이사부가 함께 불교, 불교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항이다. 이사부가 505년 실직군주가 되었을 때의 연령은 기껏해야 20대 중반을 넘지는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마지막으로 활동상이 보이는 것은 최후의 가야 정복전을 펼치던 562년의 일이다. 이로 보면 이사부는 특이하게도 무려 57년 동안의 활동 모습이 기록상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지증왕이 즉위하자 얼마 뒤 매우 젊은 나이의 이사부를 최초의 군주로 삼아 동해안을 맡도록 한 것은 물론 그의 능력이 출중하였기 때문이었으나 동시에 두 사람 사이의 특수한 관계였음을 상정케 하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지증왕의 비상적 즉위에 이사부가 깊이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지왕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살해기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불교 수용파와 반대파의 대립이었다. 그와 함께 말년의 날이군 행차와 벽화와의 만남 등 소지왕이 보인 파행적 행태가 결국 수용파의 반발을 유발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입장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된 결과 소지왕의 폐위와 지증왕의 즉위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렇다면 지증왕의 즉위를 적극 추진한 입장도 역시 불교 수용

28) 이를 불교 수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제2차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파였다고 진단된다. 여기에 불교 수용에 같은 입장을 취한 이사부가 크게 공헌한 까닭에 그는 매우 젊었음에도 최초의 지방 파견 군주란 중책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불교를 신봉한 선혜부인의 아버지 내숙이 살아 있었다면 결과론적으로 보아 당연히 지증왕 쪽에 가담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어쩌면 선혜가 소지왕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내숙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지증왕의 편을 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거칠부는 그와 같은 집안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에 친숙하게 되고 마침내 별다른 장애나 반발 없이 출가를 결행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사부가 뒷날 거칠부를 적극 추천하여 마치 후견인인 듯한 역할을 한 것도 그와 같은 동일한 입장과 배경이 작용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보면 소지왕의 불교 수용 반대 입장에 대해 지증왕을 중심으로 하는 일파가 정변을 일으켰고 거기에 적극 가담한 쪽은 이사부와 거칠부의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나물왕계의 後裔卑屬들이지만 直系가 아니었으며, 傍系들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불교 수용을 둘러싸고서는 직계와 일부 방계 사이의 대립이 있었는데 급기야는 그것이 왕위 쟁탈전으로 비화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당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가계의 분화와도²⁹⁾ 일정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수용파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實聖王(402-417)에 의해 고구려에 강제로 불모로 보내졌다가 10여년만에 귀환한 卜好의 영향을 받은 후예들이었을 지도 모른다. 복호는 고구려에 머무를 때 불교란 종교를 접하는 경험을 하고, 귀국한 후 왕실에까지 전파시키는 데 매개자의 역할을 다하였을지 모르겠다. 이들이 탁부로부터 사탁부가 떨어져 나온 뒤³⁰⁾ 직계 주류들과는 정치는 물론 종교적 입

29) 李基東, 1972 앞의 논문 참조.

30) 朱甫墩, 1992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장까지도 달리하게 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III. 出仕와 출가의 경험

1. 출사와 경험의 적용

거칠부는 관료로 나아가기에 앞서 승려로서 출가한 적이 있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뒷날 불교가 공인되고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인 7세기 초반 출가한 慈藏은³¹⁾ 빨리 환속하라는 왕명을 받았으나 끝까지 고집을 부려 처음의 의지를 그대로 관철시켰다. 그와는 달리 거칠부는 어린 시절에 출가 하였지만 곧장 환속해 仕宦하였다. 이때는 아마도 이차돈의 순교를 거치고서 불교가 공인된 뒤의 일로³²⁾ 보인다. 거칠부는 관료로 진출한 뒤 출가 때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법흥왕과 진흥왕의 정책 추진에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거칠부는 출가 뒤 전국 산천을 유람하다가 마침내 고구려의 내부 동향까지 엿보고 싶어 국경을 넘어갔다. 패기만만하기 이를 바 없던 젊은 거칠부로서는 당시 신라보다 한층 선진국이었던 고구려의 사정이 매우 궁금하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직접 관찰하고픈 호기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선 것이다. 마침 당대 고구려 명승이던 惠亮法師가 講經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서 몰래 숨어들어가 말석에서 청강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혜량이 거칠부를 보고 용모와 관상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서 따로 내밀히 불러들였다. 혜량은 거칠부가 신라인임을 확인하는 즉시 누가 밀고할지도 모르니 매우 위험하므로 빨리 돌아가기를 촉구하였다. 혜량은 떠나는 거칠부에게 나중에라도 혹여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해치지는 말도록

31) 『三國遺事』卷5 義解篇 慈藏定律條.

32) 이를 제3차전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공인된 시점은 살생금령이 내려진 법흥왕 16년(528)으로 보인다.

당부하면서 무사히 귀국하도록 도와주었다.

거칠부는 귀국한 얼마 후 환속하고서 관직에 나아갔고 나중에는 관등이 대야찬까지 이르렀다. 그 사이에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았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아마도 젊었을 때 돌아다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시 치열해져가던 전장에서 적지 않은 戰功을 세웠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진흥왕이 540년 외할아버지(혹은 伯父) 법흥왕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그의 어머니 只召太后가 섭정하였다. 이때 섭정을 도운 사실상의 정치적 실세가 이사부였다. 그는 얼마 뒤 진흥왕(실제로는 지소태후)에게 역사서 편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역사서를 편찬해야 할 명분으로서 이사부가 내세운 것은 君臣의 선악을 기록함으로써 만대에 褒貶을 드러내어 보이라는 것이었다.³³⁾ 그 결과 완성된 『國史』가 현재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유학적 인식이 그 속에 스며들었던 점은 분명하다. 정치 운영상에서 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츰 높아져가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는 신라가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部體制 단계를 벗어나 이제 막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서 지배체제를 새롭게 갖추어 나가던³⁴⁾ 시점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가 요구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서 처음 신라의 역사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 같다. 이사부는 진흥왕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거칠부를 적임자로 추천하였다.

이사부가 거칠부를 기꺼이 추천한 것은 그가 당연히 편찬의 책임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려니와 두 사람이 가까운 혈연관계로서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기도 한 점도 작용하였음이 틀림없다. 거칠부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집안이 일찍이 불교를 신봉한

3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5年條.

34) 朱甫暉, 1992 앞의 논문 참조.

만큼 이른 시기부터 수준 높은 문자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불경을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문 해독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거칠부는 잠시나마 승려로서 생활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한문을 익혔을 터이다. 전국을 널리 주유하면서 그 방면의 명사들과 교류하는 등의 경험을 쌓아갔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제반 실상에 대해 이사부는 잘 파악하고 있었던 까닭에 거칠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천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거칠부는 왕명을 받자 곧바로 『국사』 편찬에 착수하면서 널리 문사(文士)를 모집하였다. 이때 지난날 승려로서 지낸 경험이 당연히 작용하였을 터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문장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물은 아마 지극히 한정되었을 것 같다. 그 즈음엔 막 관료 조직이 갖추어져 갈 무렵이었으므로 따로 그를 전담할 부서가 없었다. 그래서 널리 문사를 모집한다고 광고해야만 하였다. 이때 달려온 인사들은 대체로 거칠부와 이전에 교류한 경험을 가졌을 것 같다.

535년 작성된 이른바 울주천전리서석의 乙卯銘에는 그런 문사와 관련해서 눈여겨 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그해 8월 4일 비구승인 安及이³⁵⁾ 사미승과 居智伐村 출신의 衆士들을 데리고서 천전리서석으로 놀러가 현장을 둘러본 뒤에 왔다간 흔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것이 바로 을묘명 기사이다. 거지벌촌은 지금의 울산시 언양읍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때의 중사란 곧 거지벌촌에 살면서 안급이란 승려를 따르고 글을 배우는 인사들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수치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이를 통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식자층이 왕경은 물론이고 지방에까지 점점 확산되어 가던 추세를 대충이나마 유추해낼 수가 있다. 그들 가운데 출가자는 물론이고 초보적

35) 본문의 내용이 '(상략)道人比丘僧安及以沙彌僧首乃至居智伐村衆士△人等見記'라 하여 安及以를 이름으로 볼 수 있으나 도인 안급을 주어로 보면 '이'는 이하를 대동하였다는 의미로 읽는 쪽이 한층 유연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풀이하였다. 혹여 이 '이'는 주격조사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나마 儒者도 나왔을 터이다. 거칠부는 전국 유람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를 익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사실은 당시 정황상으로 미루어 왕경인이 대부분이었을 터이지만) 문사들을 널리 모집해 『국사』 편찬에 착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도 儒士가 불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던 당대적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다.

『국사』를 편찬하는 데에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편찬의 시작과 마무리 시점이 모두 같은 해의 기사로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 내용으로 미루어 545년에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음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뒤 문사의 모집 및 편찬에 소요된 실제 기간을 고려하면 완성은 한참 뒤였을 듯하다. 혹시 이사부가 편찬을 건의한 시점이 그보다 몇 년 앞서고 완성은 기록된 시점인 545년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³⁶⁾

『국사』 편찬이 끝난 뒤 거칠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아찬에서 파진찬으로 승진하였다. 어쩌면 그에 동참한 사람들도 이를 전후해서 정식 관료로 발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서행정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인재가 필요해져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진흥왕이 550년 처음 문서를 총괄한 大書省을 1인 두고 승려인 安藏法師³⁷⁾ 임명한 데서 그런 사정을 읽어낼 수 있다.

불교 공인 초기에는 僧俗의 구분이 그리 엄격하지가 않았다. 대서성에도 비록 승려가 임명되었지만 국왕과 관련된 문서 출납을 다룬 데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승려가 정치 운영과 밀착되어 있던 당시의 실상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아마도 다른 관부에서도 문서 행정을 전담하는 식 자층이 많이 필요하였고, 따라서 『국사』 편찬에 종사한 인물들은 적지 않게

36) 국사 편찬 전반에 대해서는 姜鍾薰, 2002 「新羅時代의 史書 편찬—진흥왕대의 국사 편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5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참조.

37) 安藏이란 승려의 이름이 울주천전리서석 甲寅銘에 보이지만 동일인인지 어떤지는 판별하기 어렵다.

경험을 살려서 그에 어울리는 직책을 부여받아 진흥왕대의 관료로 진출하였을 공산이 크다.

2. 惠亮과의 만남, 그리고 불교 진흥

거칠부는 『국사』를 편찬하는 등 자신이 실제 문사로서 중심자적 역할을 다하였지만 당시 시대가 요청하던 군사적 활약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 진흥왕은 재위 12년(551) 되던 해에 백제의 끈질긴 요청으로 가야와 함께 한강 유역의 공략에 나섰다.

한강 유역은 원래 백제가 국가를 형성해 가던 초기 무렵부터 터전을 닦아 마침내 왕도로서 기능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었으나 475년 고구려에게 빼앗겼다. 당시 백제의 蓋鹵王(455-475)이 고구려군에 사로잡혀 목숨을 잃고 일대 위기를 맞아 부득이 웅진으로 천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뒷날 그의 아들 武寧王(501-523)과 손자인 聖王(523-554)은 오매불망 고토 탈환을 꿈꾸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러다가 551년에 이르러 백제는 드디어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신라와 가야를 연합세력으로 끌어들여 한강 유역 탈환 작전을 결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거칠부는 최초의 대각간으로 추정되는 仇珍을 비롯한 소위 8장군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선봉에 나섰다. 백제가 고구려와 싸워 한강 유역의 두 거점도시 漢城과 (남)平壤(현재 남양주 일대로 추정되고 있음)을 포함하는 6郡을 탈환하는 사이에, 신라는 단독으로 한강 상류의 10郡을 확보하였다.³⁸⁾ 이때 거칠부는 출가하여 고구려에 들어갔을 때 만난 적이 있던 혜량 법사와 다시 운명적으로 邂逅하게 되었다. 신라군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혜량법사는 휘하의 무리를 직접 거느리고서 거칠부 군사를 맞았다.

혜량이 이끄는 무리는 고구려 지배층의 내분에 따른 불안한 政情이 지방

38) 李丙燾, 1976 「眞興王의 偉業」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671.

에까지 미치게 되자 고국을 이탈하여 신라로 망명해 간 것이었다. 혜량이 원래 주석하던 사찰은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아마 한강 유역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던 것 같다. 거칠부가 이 방면 군사 작전의 선봉에 서서 군공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도 일찍이 전국을 유람하던 젊은 시절 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리·지세와 지형지물을 익힌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을 터이다. 거칠부는 혜량을 만나자마자 말에서 내려 軍禮를 다하고서 함께 왕경으로 귀환하였다.

거칠부는 귀환한 고구려의 승려 혜량을 진흥왕에게 천거하였다. 진흥왕은 그를 國統(혹은 僧統이라고도 함)으로 임명해서 국정을 자문해 주도록 희망하였던 것 같다. 국통은 사실상 최초의 승직으로 이후 승관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최고 명예직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갓 출범한 국통에 임명된 혜량은 진흥왕대의 정치는 물론 불교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자문역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은 그의 정책 자문을 받아 여러 가지로 괄목할 만한 새로운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³⁹⁾

그 점은 먼저 혜량이 百高座法會 및 八關之法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는 데서 뚜렷이 드러난다.⁴⁰⁾ 백고좌법은 여러 이름난 고승을 초청하여 대표적 護國經典으로 널리 알려진 『仁王經』을 읽으면서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법회이며, 팔관회는 불교와 기존 토속신앙을 단일화시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의식으로서 둘 다 호국법회의 전형으로 손꼽힌다. 진흥왕이 이런 일시적 호국법회를 추진한 사실은 그밖의 불교 시책 일반에 대해서도 혜량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이로 보면 혜량은 신라 불교가 채 기반을 갖추기

39) 분명하지는 않으나 진흥왕이 한강 하류역을 장악하고자 고구려와 밀약하였다거나 혹은 그런 첩보를 만들어 백제가 한강 유역으로부터 철군하게 만든 것도 고구려의 내부 동향을 잘 알고 있던 혜량의 지략에서 나왔을 공산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혜량 혹은 그를 매개한 거칠부의 자문역에서 빠트릴 수 없는 대목이다.

40) 『三國史記』卷44 列傳 居柒夫傳.

이전에 국가 혹은 국왕과 불교의 관계 구축에 크게 비중 있는 자문을 실시하였던 것 같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되는 대상은 皇龍寺의 창건이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창건된 사찰이다. 원래 月城에 대신하는 새로운 궁궐을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그곳에서 黃龍이 출현하였으므로 佛寺로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⁴¹⁾ 그래서 때로는 黃龍寺라 불리기도 한다.⁴²⁾ 黃色은 五行의 土로서 중앙을 뜻하며, 거기에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므로 임금을 뜻하는 ‘皇’과도 쉽게 서로 통용될 수 있었다. 신라 왕도의 거의 正中央이라 할 곳에 위치한 황룡사의 寺名은 신라적 세계관의 중심이라는 진흥왕의 천하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⁴³⁾ 이후 황룡사는 명실 상부하게 신라 호국도량의 중심 사찰로 기능하였다. 뒷날 善德女王(632-647)은 백제의 공격으로 낙동강 이서 지역을 상실 당하는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당나라에 유학하였다가 갓 귀국한 慈藏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심 수습의 차원에서 9층목탑을 건립하였다는데, 여기에 또한 바로 그런 천하 의식이 깊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또한 황룡사의 위상을 반영해 준다.

진흥왕은 재위 12년째인 551년 정월 開國이라고 연호를 고쳤다. 이때는 7세에 즉위한 진흥왕이 바로 성년이 되던 해로서 그동안 어머니 지소태후의 섭정으로부터 벗어나 親政하기 시작한 시점이다.⁴⁴⁾ 따라서 ‘나라를 열었다’, 혹은 ‘나라를 열겠다’라는 의미의 연호를 내세운 것은 그야말로 자신이 직접 다스리게 된 신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젊고 패기에 찬 진흥왕의 강력한 의지가 깃든 표명이라 하겠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위험 부담을 크게 무

41)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14年條.

42) 『三國遺事』卷3 塔像 皇龍寺丈六條.

43) 분황사, 황복사, 황성사 등 ‘皇’이 붙어 있는 寺名이 유독 이 부근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당시 신라인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44) 李丙燾, 1976 앞의 논문.

릅쓰고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결단을 내렸거니와 바로 그 시점에서 고구려의 고승 혜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당시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막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등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아 새로운 국가로 발돋움하려 하였으나 아직 사상적·이론적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 때마침 망명해온 혜량의 오랜 경험과 역량은 그를 추진해 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산이었을 터이다. 그래서 진흥왕으로서는 혜량을 당장 국통으로 추대하고서 그로부터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자문을 받는 등의 일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中古期 일대를 통하여 줄곧 호국의 중심 도량으로 기능한 황룡사 창건도 혜량의 발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을 듯 싶다. 뒷날 선덕여왕 재위 때 사장의 주도 아래 僧官制가 체계를 갖추어 가던 무렵 황룡사의 寺主가 곧 국통을 겸임한 사실로 미루어⁴⁵⁾ 완공 후에는 혜량이 주석한 곳도 황룡사였으리라 추정된다. 말하자면 황룡사의 창건이나 호국 호국 도량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혜량의 입장이 깊숙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풀이된다. 이는 곧 고구려 불교의 수용과 정착이었다.

진흥왕이 568년 동해안을 따라 북방을 순행하면서 국경선에 세운 黃草嶺과 磨雲嶺의 두 비에는 승려 2인이 隨駕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이는 스스로 轉輪聖王으로 자처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뒷날 신라 중고기 三寶의 하나로 인식된 황룡사의 본존불 丈六像은 진흥왕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는 본디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정복군주로서 전형적인 전륜성왕이라 할 아소카왕이 석가 三尊像을 만들려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서 재료와 관련 정보를 배에 실어 내보내면서 인연이 있는 곳에 닿아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원한 연기설화를 갖고 있는 불상이다.⁴⁶⁾ 이 또한 진흥왕이 아소카를 전범

45) 위와 같음.

으로 삼아 신라의 전문성왕으로서 호국, 호법의 화신으로 자처하려 하였음을 뜻한다. 진흥왕 35년(574) 완성된 장륙상이 그 이듬해 눈물을 흘렸는데 다시 그 다음해에 진흥왕이 사망할 징조를 보였다는 사실은⁴⁷⁾ 바로 그런 측면을 뚜렷이 반영해 준다. 550년대 초반에 진흥왕이 아들을 잇달아 낳자 銅輪과 舍輪(쇠륜으로서 즉 鐵輪을 뜻함)이라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전문성왕 의식의 일단을 보여 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진흥왕은 지배체제 정비와 함께 영역 확장에 성공하면서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였다. 당시 불교는 정치와 떼어내기 힘들 정도로 굳게 결합, 밀착해간 것이었다. 그를 전반적으로 추진한 핵심은 바로 국통인 혜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라는 불교 공인의 초기 시점으로서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혜량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장차의 방향을 설정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고구려에서 추진해 왔던 불교 사상과 문화 및 제반 시책이 그 속에 저절로 스며들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백제 사신의 안내를 받아 521년 梁에 나아간 뒤 武帝의 불교 惑信策을 법흥왕이 적극 본받으려 노력하면서 남조 불교도 유입되었거니와 이제 혜량을 통해서도 고구려 및 북조의 불교까지 신라로 들어왔다. 신라는 초기 단계부터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남북조 두 계통의 불교를 전후해서 수용, 하나로 융합함으로써 나름의 독자적 불교문화를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신라 불교 공인의 역사가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뒤늦었으면서도 이후 급속히 발전해 갈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찾아진다.

이처럼 진흥왕대에 새로운 지배체제 강화를 도모하면서 추진한 佛敎治國策은 혜량을 통하여 유입된 북방불교의 영향이 컸다. 혜량의 그런 입장을 적

46) 『三國遺事』卷4 塔像 皇龍寺丈六條.

47) 위와 같음.

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인물이 바로 그를 국통으로 추천한 거칠부였다. 말하자면 거칠부는 진흥왕이 친정하면서 내세운 연호인 개국이란 이름 아래 강력하게 추진한 새로운 신라의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최고로 노련한 정객 이사부가 그의 뒤에서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3. 花郎徒 창설과 역할

거칠부는 진흥왕 일대를 통하여 內政을 실제로 이끌어간 핵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外政에도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그의 군사적 활약상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강 유역 진출에서 돋보이지만 562년 전면적으로 추진된 가야 여러 세력 복속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561년에 세워진 창녕비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서 유추되는 사실이다.

창녕비의 첫머리에는 진흥왕이 현지까지 帶同한 신하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밝힌 정치적 사회의 일단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로 아래에는 진흥왕을 따라 가야 공략에 나선 40여 명에 달하는 귀족 관료의 이름이 낱낱이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의 一群은 갈문왕, 大一伐干(대각간)을 비롯한 당대 최고위급으로서 중앙으로부터 국왕을 호위해서 현장에 내려온 신료들이다. 다시 그 아래에는 그들과 달리 △大等이란 구체적 직책을 보유한 두 그룹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그 아래에는 지방에 파견된 최고 사령관이라 할 4인의 四方軍主 등 지방관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거칠부는 첫머리의 △대등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재된 인물이다. 기재 순서와 함께 그의 관등이 2등인 一尺干(이찬)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 막 치르기 시작한 가야와의 전면전을 실제로 추진해가는 데 거칠부가 최고위급 실무책임자였음이 확인된다. 대가야 공략에서는 연로한 이사부가 명목상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50대 중반의 거칠부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거칠부는 545년 파진찬이 되었지만 이후 561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이찬으로까지 승진하였던 것이다. 그는 568년에는 진흥왕을 따라서 신라의 동해

안 최전선인 마운령과 황초령에까지 나아갔다. 거칠부는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서는 대등의 직책을 보유한 여러 신료들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2등인 伊干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가 한강 유역 진출 이후에도 계속 전장을 누비면서 군공을 크게 세웠음을 알게 하는 사실이다.

거칠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혁혁한 군공을 세우면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갔다. 진흥왕대 후반에는 이사부의 뒤를 이어 국왕을 보좌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의 중심자적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고 진지왕이 그 뒤를 이었을 때 즉각 상대등으로 취임한 데서도 그 점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각별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진흥왕대에 화랑도가 창설되었다는 사실이다. 화랑도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⁴⁸⁾ 진흥왕 37년(576)에 이르러 조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562년 사다함이 화랑으로서 이사부를 따라 가야 공략을 위한 작전에 참가하였던 사실로⁴⁹⁾ 미루어서 화랑도가 처음 조직된 것은 576년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어느 시점이었음⁵⁰⁾ 분명하다. 따라서 화랑도와 관련된 전후의 사정 모두가 진흥왕의 재위 마지막 해인 37년조에 한꺼번에 기록된 탓으로 마치 그때 창설된 듯이 잘못 비쳐졌던 것이다.

그런데 화랑도 창설에 앞서 잠시 源花制가 실시된 적이 있었다. 俊貞과 南毛라는 두 명의 미녀를 원화로 삼아 그들을 중심으로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이 모여들어 조직을 이루었다. 그들은 상호 경쟁적으로 道義를 연마하고 그 행실과 능력에 따라 관료로 천거되는 제도였다. 원화제는 관료를 양성하는 데 새로이 취한 방식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원화제는 두 여성 원화가 질투하여 준정이 남모를 죽이게 되는 일

48)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37年條.

49)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眞興王 23年條 및 44 列傳 斯多含傳.

50) 『三國遺事』卷3 塔像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대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원화제가 실시된 구체적 시점은 드러나지 않으나 진흥왕대의 일임은 틀림없다.⁵¹⁾ 다만 진흥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한 뒤 지소태후가 섭정하던 시절의 일로 추정되고 있다.⁵²⁾ 그 무렵 중앙군단의 핵심인 大幢을 비롯한 몇몇 새로운 제도가 창설되고 『국사』를 편찬하며 승려의 출가를 허락하는 등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일견 타당한 추정이라 여겨진다.

원화제가 폐지된 이후 한동안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다가 여러 해가 지나⁵³⁾ 화랑제의 형태로 거듭났다. 화랑제가 처음 조직된 시점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진흥왕의 친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흥왕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개국이란 글자 그대로 신라를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진흥왕의 강한 의지가 담겨진 연호이다. 그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이기 위한 시험무대로서 진흥왕은 한강 유역에로의 진출을 도모해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진흥왕은 이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려는 도정에서 그를 감당할 만한 인재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중차대함을 느껴 얼마 전 폐기된 원화제를 대폭 수정해서 마련한 것이 화랑제라고 생각된다. 어찌면 당시 그 조직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한 인물은 거칠부였을 공산이 크다. 그 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가 신라의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인재 등용의 흐름과 필요성을 누

51) 위와 같음.

52) 李基東, 1994 「신라 화랑도 연구의 현단계」 『이기백선생 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상)』 참조.

53) 원화제가 폐지되고 화랑제가 창설된 시점을 밝히면서 『三國史記』에서는 ‘其後’라 표현하였고, 『三國遺事』에서는 ‘累年’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의 일임은 확실하다.

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사회가 필요한 인재의 성격이나 내용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란 정치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언제나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제 진흥왕은 친정을 하고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국왕 중심으로 지배체제를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였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황룡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인 불교의 기반을 확충해 가던 중이었다. 이로써 불교를 매개로 한 새 시대를 열어갈 폭넓은 식견을 갖춘 관료 양성이 요구되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거칠부는 유학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적 理想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바로 것처럼 자신과 같은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화랑제 창설을 주창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그 자신이 어린 시절 출가한 뒤 천하 사방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고구려 경역에까지 들어갔던 경험이 관료로서의 활동에 크게 보탬이 된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천하 周遊 경험, 승려로서의 새로운 지식 습득 등은 뒷날 화랑의 교육과 훈련 과정 내용 꼭 그대로이다. 화랑도 조직 속에 승려가 가르치는 교사로서 배치되었다. 그들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도의를 연마하며 가락을 짓고 서로 교유하며, 유희를 즐기면서 멀리까지 전국의 산천을 遊娛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곳곳의 지형지세를 착실히 익히기도 하였다. 비로 이런 전반적 사항은 거칠부 자신이 출가해서 경험한 내용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이로 보아 어쩌면 거칠부가 혜량을 진흥왕에게 천거한 뒤 불교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화랑제 창설을 건의하였다고 보아도 지나친 억측은 아니겠다. 화랑이 마치 彌勒仙花의 化身인 듯이 인식되고 있었던 사실도⁵⁴⁾ 그런 실상과 잘 어울리는 일이다.

이처럼 화랑도는 거칠부의 주장을 진흥왕이 적극 받아들여 새로운 성격

54) 『三國遺事』卷3 塔像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의 인재 양성을 겨냥해서 채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역량이 처음으로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 곧 이사부가 어린 사다함을 대가야 정벌에 데리고 나선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과연 진흥왕이 기대했던 대로 사다함은 훌륭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였다. 사다함은 군공 포상으로서 진흥왕이 억지로 주려는 포로와 토지를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받게 되었다. 그는 이 포로들을 양인으로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이 不毛의 땅을 요청하면서 이를 즉시 戰士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선행을 보였다. 이런 행태는 진흥왕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요청되는 인간형의 전범처럼 보였을 법하다. 사다함의 행위는 겉으로는 불교의 전문성왕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정치적으로는 王道政治의 실현을 이상으로 추구하던 진흥왕에게 더할 나위없이 흡족하게 느껴졌을 터이다. 사다함은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맹세한 친구 武官郎이 병으로 사망하자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7일 만에 따라 죽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진흥왕이 추진한 왕도정치의 구현뿐 아니라 의리가 요구되던 시대상에도 크게 합치되는 덕목이었다. 진흥왕은 그런 예비적 과정을 거쳐서 화랑도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재 양성의 표본으로서 굳혀나가도록 적극 지원하였던 것 같다. 화랑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진흥왕의 생각에 썩 어울리는 인재 양성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 조직화를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한 숨은 공로자는 바로 거칠부였다고 추정된다.

이후 진흥왕대에서는 거칠부의 활동상이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진흥왕이 사망하고 그의 둘째 아들 진지왕이 즉위하던 바로 576년에 상대등으로 임명되었다. 진흥왕대에 최고위직에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을 정도로 거칠부는 계속 중용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진흥왕은 죽음을 앞두고서 국정 경험이 풍부한 거칠부로 하여금 너무 젊어 미숙하고 불안감을 풍기까지 하는 진지왕을 적극 보필하도록 유언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지왕은 재위 4년 동안 정무를 거의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행위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혼란이 초래되자 황음하다는 사실을 빌미로 국민들

의 결의에 따라 폐위되었던 것이다. 거칠부도 책임의 일단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터이다. 다만, 그가 진지왕의 폐위와 함께 상대등에서 물러나기만 하였을 뿐 달리 처벌은 받지 않았다. 퇴임 얼마 뒤 집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에게 부과된 정치적 책임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어쩌면 그동안 쌓아온 공로가 참작된 결과일지도 모를 일이다.

IV. 맺음말

익히 아는 바처럼 역사를 다루는 입장과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특정한 인물의 활동을 매개로 해서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접근 방법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라사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기가 진흥왕 대임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가장 당시 활발하고 폭넓게 활동한 거칠부는 충분히 그럴 대상이 되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거칠부의 전모를 다루어본 시도는 없었다. 특히 거칠부가 출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반 주목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가 경험이 그가 관료로 진출한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전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칠부의 집안은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서 공인되기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의 고모인 소지왕비 선혜부인은 사금갑설화희의 전후 내용으로 미루어 불교 수용을 적극 추진한 인물로 추정된다. 반면 소지왕은 불교 수용을 반대하는 편에 섬으로써 적지 않게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다. 불교 수용을 대표한 인물은 뒷날 즉위한 지증왕이었으며, 異斯夫와 거칠부의 집안도 거기에 가담하였다. 마침내 두 입장이 2차례에 걸쳐 대결을 펼친 결과 최후의 승리는 후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나물왕의 직계가 아닌 방계들이었으며, 그런 측면에서 지증왕의 즉위로 새로운 왕통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지증왕은 자신의 후예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괄목할 만한 시책을 펼쳤는데 그 밑바탕에 불교적 이상이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거칠부는 仕宦하기에 앞서 승려의 길을 걸었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어린 나이로 출가하게 된 배경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전국을 자유롭게 주유, 유랑하면서 습득한 그 시절의 체험은 관료로 나아갔을 때 곧장 정책에 반영되었다. 특히 고구려 승려 혜량과의 운명적 만남은 그를 실천에 옮기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551년 친정을 개시하면서 연호를 開國으로 내건 진흥왕은 그에 어울리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거칠부의 추천으로 국통으로 맞이들인 혜량의 역할이 컸다. 진흥왕대는 이제 막 불교가 국가적 종교로서 공인된 상태였으므로 기반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망명 승려 혜량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취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대표적 호국도량인 황룡사의 창건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불교는 정치와 밀착되어가 명실상부한 불교식 왕명시대를 구축하여 갔다. 진흥왕은 스스로 신라의 전륜성왕으로 자처하였으니 그럴 만한 이론적 사상적 근거는 그의 대부분 혜량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거칠부는 관료로서 기반을 굳혀가고 특히 진흥왕의 핵심 보좌역을 수행하게 되면서 화랑제도의 창설을 건의한 것 같다. 화랑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교육의 중심적 내용은 건의자 거칠부의 성장 과정 및 출가의 경험으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거칠부는 어린 출가의 경험을 배경으로 진흥왕 일대를 통해 숭한 업적을 쌓음으로써 삼국통일예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투고일 : 2014.09.26

심사개시일 : 2014.11.14

심사완료일 : 2014.11.25

참고문헌

- 姜鍾薰, 2002 「新羅時代の 史書 편찬-진흥왕대의 국사편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 5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김창겸, 2011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 101
- 김창석, 2009 「신라의 우산국 복속과 이사부」 『역사교육』 111
- 朴南守, 2003 「신라 和自會議에 관한 재검토」 『신라문화』 21
- 윤진석, 2013 「5-6세기 신라의 정치운영과 갈문왕」,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基東, 1972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 53 · 54합집
- 李基東, 1984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 李基東, 1994 「신라 화랑도 연구의 현단계」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상)』
- 李基白, 1954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歷史學報』 6
- 李基白, 1986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 이명식, 2004 「신라 중고기의 장수 이사부」 『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 25
- 李丙燾, 1976 「眞興王의 偉業」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鄭求福,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 의 金石學的 高찰」 『韓國古代史研究』 3
- 朱甫噉, 1989 「영일냉수리신라비에 대한 기초적 검토」 『新羅文化』 6
- 朱甫噉, 1992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 朱甫噉,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 朱甫噉, 2010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啓明史學』 21

Abstract

Geochilbu's life as a monk and his public activities as an official

Ju, Bo-don

A representative person, who was the most remarkably active during King Jinheung in the Shilla Dynasty, can be Geochilbu(居柒夫). Nonetheless, there was no historic document that addressed him in full scale seems to be quite unusual. This study intended to approach facts by examining his activities in association with his leaving home to become a Buddhist monk.

Geochilbu's family had special relation with Buddhism a long time before Buddhism was recognized as the national religion. He had a unique experience of taking a path as a monk, before becoming a government official. His family atmosphere strongly affected the background that he left home to be a Buddhist monk at young age. The experiences those days, freely making a trip across the nation and wandering around were reflected to his policy, when he became a government official. Especially, fateful encounter with Koguryo Buddhist priest, Hyeryang(惠亮), hugely affected Geochilbu to put those experiences into practice. As King Jinheung started direct rule in 551 using era name, Gaeguk(開國), embraced Hyeryang as Guktong (top place in the Buddhist monastic order), policies in harmony with such an appointment seemed to be implemented in full scale.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Buddhism was just recognized as the national religion, and its basis was not properly laid. For this reason, King Jinheung tried to overcome such a weakness by actively accepting Koguryo's exile monk, Hyeryang's assertions. A typical patriotic temple, Hwangryongsa Temple, is conjectured to be founded by accepting Hyeryang's proposal. In this way, Buddhism began to build Buddhism style king's order era in name and reality through close adherence between Buddhism with politics. King Jinheung called himself Shilla's Chakravatin. The most plausible theoretic basis of such thought seemed to come from Hyeryang.

As Geochilbu solidified his footing as a government official, and carried out

core aid role of King Jinheung, he appeared to propose the foundation of Hwarang (Shilla chivalry) system. The main content of Hwarangdo (the code of Shilla chivalry) education appears to be derived from Geochilbu's growth process and the expedience of his leaving home to be a Buddhist monk. Likewise, Geochilbu laid the foundation for Shilla's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by building up many achievements through out King Jinheung's period at the backdrop of his experience of leaving home to be a Buddhist monk at early age.

Key words : Geochilbu, King Jinheung, Leaving home to become a Buddhist monk, Hwarangdo, Haeryang, Hwangryongsa Temple, Patriotic temple